

탈원전... 정답은 그린에너지

원광대, 특성화 교육·산학협력 거점 구축위한 ICT 융합 발전포럼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ICT 융합 그린에너지 연구원은 그린에너지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 거점 구축을 위한 ICT 융합 그린에너지 발전포럼을 최근 교내 송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ICT, 에너지, 4차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백수현 회장과 한국전력연구원 송일근 부원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김선근 상무, 원광대 이용범 석좌교수, 정호그룹 류재만 회장, 전기신문 정형석 수석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식 인사말에서 대학의 4대 특성화를 소개한 김도중 총장은 "특성화 전략을 통해 그린에너지 분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지속가능성이 가능한 그린에너지 특성화에 힘입어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첫 강연에 나선 백수현 회장은 ICT 융합과 함께 에너지 국제 표준 동향을 소개하고, 대학에서도 국제 표준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한편 전력연구원 송일근 부원장은 전력산업에서 그린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분야로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점에서 그린에너지 특성화는 매우 적절한 분야임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대우건설 김선근 상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소개와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설명을 펼쳤으며, 이용범 석좌교수는 식품공장과 에너지에 관한 제반 ICT 융합 기술과 함께 해외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ICT 융합을 위한 시스템 및 센서와 제어 기술을 소개한 정호그룹 류재만 회장은 "그린에너지를 위한 솔루션은 ICT 및 제어기술과 인공지능에 있다"며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향후 산업의 발전 관심은 물과 에너지 분야임을 인식하고, 그린에너지 특성화를 비롯해 미래를 예측하는 교육시스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지역의 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유기견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지구보존운동연합회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건강원에 유기견 빼돌렸다”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보호소 소장 처벌 규탄 성명

익산지역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유기견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지구보존운동연합회 등 27개 동물보호단체 등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학대를 목격하는 익산시의 직무유기와 빼돌린 유기견을 병동보관해 돈벌이로 이용한 A소장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 다”고 말했다.

또 “유기견도 생명”이라며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구조와 보호, 치료는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며 “구조된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 단속하지 않는 익산시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해당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동물보호 위탁사업에 A소장이 임명되기까지 각종 특혜시비와 이로 인한 국고낭비의 책임을 밝히고 해당 부조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몇년간 안락사 없는 익산시를 자랑하다 이 사건을 동물단체

가 항의하자 추석연휴 후 27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면서 “모든 유기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기견을 임의로 처리해 사체를 보호소 냉동고에 보관한 기록과 건강원으로 빼돌린 숫자를 밝히고 진상규명에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A소장의 배우자가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과한 해당 주무관과 불법으로 유기견을 빼돌려 돈벌이에 이용한 배우자, 이를 주도한 A소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B시민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걸 맞게 반려동물 및 유기견을 위한 관중도의 동물보호센터, 화장시설 및 매장시설과 더불어 동물장례식 등이 만들어져 향후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점은?

바다회집, 지역최초 위생등급 '매우 우수' 획득

군산시 내운동에 소재한 '바다회집(현대코아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군산시 최초로 '매우 우수' 업소로 지정되었다.

시에서는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관리 및 외식문화 수준 향상에 앞장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 업소로 지정된 '바다회집'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편, 방문으로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하면 각 신청업소에 대하여 식약처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쳐 취득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을 받게 된다.

바다회집 관계자는 “군산 최초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군산시 이미지 향상과 위생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경쟁력 있는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부심과 포부를 밝혔다.

장영길 복지관광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통해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아울러 외식 산업의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군산시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인정받아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리영농조합 장려상 수상

군산시는 성산면에 소재한 우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재순)이 지난 18일 '2017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의 활성화와 6차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농업인의 참여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로 진행되

며, 이번 3차 발표심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10명, 국민심사단 3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10개 우수 경영체의 창조성·혁신성, 경쟁력, 지역농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2017년도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리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려상인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동신 시장은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이번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군산시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지역소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줄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 프로그램 기획공모전 시상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인문산학협력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 프로그램 기획공모전’을 기획하고 최근 시상식을 열었다.

공모전에는 역사를 활용한 지역축제 개발, 주요 관광지 및 맛집 리뷰를 통한 지역 알리기, 지역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를 활용한 역사 탐방, 관광지 탐방과 드라마 형식의 군산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전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김공의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이해자 인문대학장, 정영철 인문산학협력센터장, 인문산학협력센터 운영위원들이 심사하였고, “발표 및 표현능력,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접근 방식이 돋보였으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군산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최우수상에는 GAU(Gunsan And you) 팀의 “군산 그리고 너”가, 우수상에는 “미디어와 함께하는 군산” 및 “근대 군산의 거리와 삶”이, 장려상에는 “재난 금평화공동축제”, “군산8경과 포토존”, “군산역사리뷰블로그” 등이 선정됐다.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인문산학협력센터는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군산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 “이젠 옛말”

익산시, 조정·분수대 등 주민 친화시설 확보 만전 타 시군 선진지 견학 이어져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10만톤/일)을 찾는 견학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익산시 주민들 및 관광객역시 등 타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차 7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동에 소재한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5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평균 887,000톤

의 익산시내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 대신 주민 친화시설 및 편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견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경관리와 미니 분수대와 벤치를 마련해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와 더불어 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